



NEWS LETTER

2019년 8월 26일 Vol. 351

관상동맥우회술 3회 연속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다른 부위의 혈관을 이용해 막힌 부위를 우회하여 통로를 만들어주는 고난도 수술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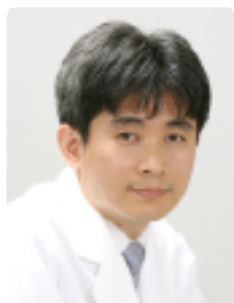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각 평가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평균 93.51점 보다 높은 95.62점을 기록했다.

이해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많은 경험과 노련한 숙련도,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3회 연속 관상동맥 우회술 1등급을 획득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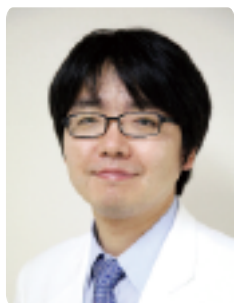
신경과 김동억 · 류위선 교수 연구팀, ‘평소 뇌 건강을 잘 챙겨야 뇌경색이 생겨도 재발이 적고 사망률이 낮다’ 연구자료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 류위선 교수 연구팀은 최근 장기간에 걸친 뇌혈류 순환 장애를 반영하는 뇌백질변성의 부피가 클수록 급성 뇌경색 후 뇌졸중 재발률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1개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팀과 협력해 7101명의 급성 뇌경색 환자의 MRI 영상을 정량 분석하고 임상적 예후를 1년간 추적 관찰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이다. 김동억 교수는 뇌 건강관리로 “본인이 느끼는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의 유무를 체크해 의사와 상담 후 필요 시 투약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위험인자가 많은 경우 또는 장기간 있었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뇌 MRI를 찍고 뇌혈관 협착, 무증상 뇌경색, 심한 만성뇌허혈 백질변성의 유무 등을 점검받아 보는 게 뇌졸중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경과
김 동 억 교수



신경과
류 위 선 교수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교수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서는 원내 내과, 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과 8월 14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교수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서상연 센터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완화의료센터에 대한 연혁과 입·퇴원 환자현황, 인력, 시설현황 등 입원절차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와 함께 질의응답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상연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장은 “앞으로 여러 진료부서와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기 암 환자들이 의미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불교종립병원으로서 부처님의 자비정신 구현을 위한 호스피스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친절직원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일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친절 교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2019년 하반기 친절 우수 교원은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가 수상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김호섭 전공의, 외래간호팀 김소진 간호사, 111병동 유지영 간호사, 재활의학과 박철중 치료사, 정신건강의학과 김주영 직원이 각각 친절직원으로 선정됐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는 한방내과 김영지 전공의가 친절우수 교직원으로 선정됐다.

